

한센병에 대한 오해



편 용 우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조교수
pyunsama@gmail.com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이나 나종균(*Mycobacterium lepromatosis*)에 오랫동안 접촉한 경우에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나병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천형(天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리적인 잘못으로 인해 하늘이 내리는 병으로 여겨졌다. 한센병이 노르웨이의 예르하르 헨리크 아르메우에르 한센(Gerhard Henrik Armauer Hansen, 1841~1912)에 의해 위의 병균으로 인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871년의 일이었다.

한센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와 연결되어 업보로 인한 천벌로 인식되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하자 여호와와 벌을 받아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는 구약성서 민수기의 12장이 유명하다. 이에 모세의 형 아론이 ‘누이를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서 나온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청원하자, 모세는 여호와에게 제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은 ‘7일간 진영 밖에 격리해 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였다. 역시 레위기의 12장에는 ‘나병에 걸린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병이 있는 동안 내내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하므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그가 살 곳은 진영 밖이다’ 고 전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의 원인을 ‘부정’ 이라고 생각했으며, ‘격리’ 가 최상의 치료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던 일본의 귀족들 역시 한센병의 원인을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의 일본 귀족들은 한센병 환자를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한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로 불교에 신심이 깊었던 고묘 황후(光明皇后, 701~760)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고묘 황후는 1000명을 목욕시켜 주겠다는 소원을 빌었다. 목욕이 고대불교부터 죄를 씻는 정죄(淨罪)의 의식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0명 째 찾아온 사람이 한센병의 중증환자였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접촉마저 꺼려했지만 고묘 황후는 아무렇지 않게 환자의 목욕을 끝내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 목욕이 끝나자 환자는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여려보살의 화신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고대 일본의 한센병 환자는 보살의 현신이라는 ‘성(聖)’의 이미지와 업보를 안고 살아가는 ‘천(賤)’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이미지는 불교가 융성하고 현세가 덧없다고 생각하는 무상사상(無常思想)이 팽배했던 12세기~15세기의 중세시대까지 이어졌다. 한센병 환자들은 교토의 세이엔지(清円寺) 절에 집단 거주하며, 마을로 나가 보시, 즉 구걸을 했는데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덕을 쌓아 더 나은 내세를 위해 보살에게 보시하듯 한센병 환자들을 대접했다.

시대가 흘러 현세를 즐기려는 풍토가 강해진 근세가 되자 한센병 환자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할 때 시주자들에게 현세에서 복 받으라는 의미로 ‘모노요시(物吉)’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런데 이 말은 동음이의어로 ‘물건이 좋다’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가 정력이 좋다는 오해를 낳았다. 또한 살이 부패하는 증상이 매독과 유사했기 때문에 성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근세 후기에 보이는 한센병 환자들의 춘화(春畵)는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탄생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학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몸이 ‘기(氣)’와 ‘혈(血)’, ‘수(水)’로 이루어져있다고 여겨왔던 일본 의학의 큰 부류인 ‘고방파(古方派)’에서는 한센병의 원인을 오염된 피, 즉 ‘악혈(惡血)’이라고 여겼다.

나병은 불치병이다. 그 원인은 여성의 월경혈에 있다. 일찍이 나병은 흔치 않은 병이었지만, 요즘 2,3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피가 더럽혀지는 것을 삼가지 않고, 월경중에 교합을 하기 때문이다. 월경혈은 「악혈 중에서도 가장 나쁜 피」이기 때문에 여성은 매달 사혈(瀉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월경혈이 여성의 태내에 남아있을 때에 교합하면 악혈이 아이의 태내에 남아 나병의 근원이 된다. 아이 태내의 악혈은 점차 사기(邪氣), 독물(毒物)을 초래하여 반점을 만들고 생혈이 돌지 않게 되어 손발이 굵게 된다. 나병은 「혈맥의 자손」까지 앓게 하므로, 「한 명이라도 이 병에 걸리면 자손대대로 그 피를 이어받아 나병을 앓게」 되어 언제까지라도 끊임없이 환자가 나온다.

고방파를 대표하는 무라이 긴잔(村井琴山)의 의학서 『화법일만방(和法一萬方)』(1785)의 한 구절이다. 무라이는 한센병의 원인을 생리중의 성관계로 여기고, 나아가 유전까지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특히 유전과 관련된 오해는 근대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생학 유행이 더해져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한센병 환자를 격리 수용했던 요양소에서는 1915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희망자에 한해 임신중절수술을 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인들의 오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결혼을 금지하면 욕구불만인 환자들이 도주를 해서 유곽에 들어가 균을 흠뻑릴 것이다¹⁾」라고 하는 1919년 일본 내무성의 「보건위생조사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과학적인 단종 정책은 1940년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 1948년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 등의 우생학에 기인한 법률에 그대로 담겨져 최근까지 이어졌다. 강제임신중절이 사라진 것은 1996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계속)

후지노 유타카(藤野豊) 『「いのち」の近代史』(かもがわ出版, 2001)